



# 철판 위 오색 꽃지짐이의 향연

“아이고~ 아가씨, 기름을 더 둘러야 눌러붙지 않아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안내한 곳은 공간간 옆 뒷마루. 프라이팬 하나에 6명이 웅기웅기 둘러앉아 알록달록 화전(花煎)을 붙이고 있다. 지글지글 화전 굽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에 빈속이 요동친다.

병풍같이 드리운 달마산 아래 미황사에서 향긋하면서도 쫄득한 화전 맛은 긴 여정의 피로, 도시생활에서 느끼던 피곤함도 순간 잊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였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은 4월 2일 ‘봄맞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진달래꽃을 따다가 화전을 만드는 봄맞이 특별 템플스테이였다. 워낙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날은 유난히 외국인이 눈에 띄었다. 외국인참가자 7명을 포함한 30여 명이 함께한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진달래, 동백꽃 등 봄꽃을 따는 일부터 시작됐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육감을 자극했다. 눈으로 색을 보고, 찹쌀 반죽을 손으로 빚으면서 촉감을 느끼고, 기름을 두른 철판 위에 지글지글 굽는 소리까지. 맛있는 냄새를 함께 맡고, 맛을 음미한다. 그리고 화전을 구우며 마음을 나누는 일까지 함께한 이들은 오랜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처럼

즐거워했다.

외국인들은 둥그러야 한다는 화전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한글 ‘미황사’, 자동차, 기린 등 아이디어도 다향했다. 참가자 중 가장 어린 유재혁(9)군도 애벌레, 고양이를 만들면서 화전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화전을 만들고 난 뒤에는 사찰예절 교육, 저녁 공양, 저녁 예불, 다담(茶談)이 이어졌다.

사찰예절 교육시간에 ‘삼배’의 의미와 방법을 배우고 나서야 언제 절하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몰라서 결눈질만 하던 이들도 제법 그럴싸하게 절을 하게 됐다. 저녁 예불을 마치자 미황사에는 벌써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정갈하게 놓인 다구 앞에 참가자들은 길게 두 줄로 마주 앉았다. 과중시계는 겨우 저녁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너무 고요해서 한 밤중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여러분 또한 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는 꽃과 꽃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황사는 오랜 세월 동안 수행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계속돼 온 수행의 향기가 대웅전에도 산책길에도 남아있습니다. 수행의 향기가 있는 이곳에

서 봄맞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게 됐습니다. 봄맞이의 여흥도 즐기시는 지난날을 뒤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말씀이다.

“꽃을 따는 것은 결실을 맺기 위한 꽃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기 전에 나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직한 스님의 말씀이 잔잔한 감동으로였다. 참가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

## 외국인도 어린이도 한마음으로 자동차, 기린, 애벌레, 고양이

자는 마음 깊은 곳에 있고 있던 소중한 우는 시간이 됐다고 했다. 스님이 직접 주신 작은 청매화 한 송이는 사람들의 매울 만큼 진한 향기가 났다.

이어 참가자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왔다는 한 여성 참가자는 “템플스테이니 미황사가 제일 먼저 나오기에 신중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